

# 조작된 삶의 이미지 속 '정서적 금치산자' 들 그려

《장밋빛 인생》 펴낸 정미경씨

2002년 '오늘의 작가상' 수상자인 정미경씨(42)의 《장밋빛 인생》(민음사)에서 고통은 인물의 내부로 침잠해 들어가지 않는다. 색색의 유리 표면 같은 이미지 저쪽에서 고통은 한없이 미끄러진다.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고통은 그러므로 흐릿하다. 그들은 서로 이미지만 탐닉할 뿐 고통을 들여다보거나 그것을 나누며 소통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그들은 이미지로 가득찬 세계의 '정서적 금치산자' 들이다.

“현대 사회의 일면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광고는 현대인의 감성을 드러내는 극점이라고 할 수 있죠. 광고에서처럼 그들이 현실에서도 예민하고 섬세하고 타인과 소통하면서 사는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씨의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의 직업은 광고기획자, 재즈댄스 강사, 요리방송을 진행하는 푸드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이다.

소설은 1인칭 화자의 현재 시점과 회상 시점이 교차하며 흘러간다. 주인공 '나'는 광고회사의 AE다. 그는 광고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온 사람이다. 그에겐 오직 30초의 광고만이 의미 있는 삶의 순간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민의 갑작스런 죽음이 전해진다. 민은 그가 작업 현장에서 만나 사랑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다.

“아름도 겪어보고 자신이 형편없다고 느껴보기도 하는 그런 삶의 조각들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인생은 이래야 한다' 는 장밋빛 환상은 그런 행복의 본질을 가리고 조작해버려요.”

민은 유부녀였다. 민의 갑작스런 죽음의 원인이 분명치 않듯이 그가 느끼는 고통의 실체도 분명치 않다. 그에게 남은 것은 현재 시점에서 꼬리를 물고 반추되는 추억, 즉 이미지뿐이다.

인터넷이 강호는 광고의 세례를 받으며 자라온 세대다. 오직 광고에만 매달리는 그는 주인공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반영하는 인물이다. 주인공은 그런 강호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광고의 현실을 보라고 충고하지만, 정작 이강호가 광고에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자신에게 닥친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주인공, 민, 이강호뿐 아니라 주인공이 정사를 나누게 된 재즈댄스 강사나 요리 프로그램에서 요리로 사랑의 열정을 표현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소통이 단절된 주인공의 아내 정애 등은 모두 사람들에게 '장밋빛 인생' 을 만들어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마주 대하는 현실은 핏빛이다. 그들은 현실의 핏빛을 붙잡지 않고 장밋빛 속을 끝없이 부유한다.



정미경씨

민음사/A5신/262면/8500원

“행복은 완벽한 것들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죠. 아픔도 겪어보고 자신이 형편없다고 느껴보기도 하는 그런 삶의 조각들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인생은 이래야 한다' 는 장밋빛 환상은 그런 행복의 본질을 가리고 조작해버려요.”

현실을 조작하는 광고가 그렇듯 짙막한 장면들로 나뉜 소설은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짧게는 한줄, 길어도 8쪽을 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의 소설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읽는 속도는 지은이가 삶에서 건져올린 장면들에서 오래 멈추기도 한다. 독자는 그쯤에서 지은이가 던지는 질문에 귀 기울이게 된다. “자, 봐. 당신들은 어때?”

정씨 소설의 또다른 재미는 주인공들의 전문적인 직업을 아주 짙진하게 묘사한 점이다. 소설을 읽다보면 지은이가 전직 광고기획자가 아니었다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사실 정씨는 단 한번도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그의 묘사는 그가 수집한 자료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의 필력에 놀라게 된다.

1987년 《세계일보》에 희곡이 당선돼 중단했지만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세계의 문학》에 단편 〈비소 여인〉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이제 그는 이틀 동안 잠을 못 이뤘던 수상의 '후유증' 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되찾아야겠다고 말한다. 이 야무진 '대형신인' 은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계, 개인과 폭력 등의 문제를 펼쳐보일 예정이다. —김장근 기자

## 무대의 열정과 감동 되살린 뮤지컬 길라잡이

《아이 러브 뮤지컬》 펴낸 김기철씨

‘아는 만큼 ~다.’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를 이야기할 때 흔히 따라붙는 말이다. 그 대상이 음악이면 아는 만큼 ‘들린다’로, 서사와 선율이 어우러진 오페라라면 들리는 단계를 넘어 ‘보인다’까지 의미가 확장된다. 종합예술이란 점에서 보면 뮤지컬도 오페라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아쉽게도 뮤지컬에 대한 친절한 해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김기철씨(37,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가 펴낸 뮤지컬 안내서 《아이 러브 뮤지컬》(효형출판)이 반가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뮤지컬은 음악이 주종을 이루지만 외국어 공연이 많습니다. 작품 줄거리도 모른 채 공연장을 찾으면 감상은 커녕 비싼 돈 치르고 눈뜬 장님 되기 십상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해외에서 뮤지컬을 관람할 때 특히 유효합니다.”

그가 뮤지컬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 책에서 소개한 뮤지컬은 30여편. 모두 뮤지컬의 본고장 뉴욕과 런던에서 장기 공연중인 화제작이거나 공연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들이다. 작품별 줄거리와 주요 뮤지컬 넘버, 주연 배우와 연출가, 작곡가 소개 등 충실한 정보가 이 책의 씨실이라면,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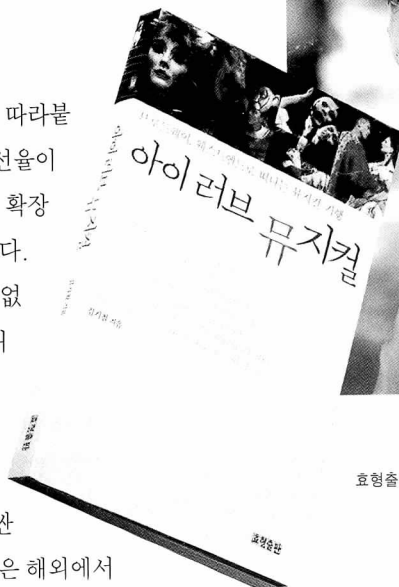
“전문 영역을 대중과 소통하도록 이끌어내는 것, 비평가와 대중을 연결시키는 매개자로 만족합니다. 이 책이 마지막 책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연 시작을 알리는 짧은 암전의 떨림을 기억하는 한 뮤지컬은 언제나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장의 감동과 열정을 종이 위에 되살린 생동감 넘치는 감상기는 날실이 된다. 책 말미의 〈뮤지컬,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의 친절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 세계 뮤지컬의 중심지 브로드웨이와 뮤지컬 빅4의 고향 웨스트엔드를 지도를 곁들여 소개하고, 입장권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요령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오페라의 유령〉〈레 미제라블〉〈캣츠〉〈미스 사이공〉 등 ‘세계가 열광한 최고의 뮤지컬, 빅4’는 열정의 무대로 이끄는 선두주자. 힘있는 출발은 〈라이온 킹〉과 〈스타라이트 익스프레스〉에 이르면 ‘즐거움과 감동을 만끽하는 모두의 축제’로 거듭나고, 날카로운 현실 비판을 담은 블랙 코미디 〈시카고〉와 〈라이프〉 등을 지나면 화려한 춤과 노래 속에 감춰진 삶의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러다 42년이라는 장기공연 신화를 창출한 〈판타스틱〉와 대면하면 절로 숙연해지고, 인간의 원초적 본성을 일깨우는 타악기의 어우러짐이 돋보이는 ‘년버벌(Non-Verbal) 퍼포먼스’를 만나면 다시 무대는 열정 속으로 빠져든다. 이렇듯 짜임새 있는 구성은



김기철씨



효형출판/A5신/294면/10,800원

뮤지컬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희로애락을 오롯이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세편을 제외하곤 해외에서 직접 관람한 오리지널 공연들입니다. 국내 뮤지컬도 빼놓을 수 없었죠. 〈명성황후〉는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서 확인시켜줬고, 요리사들이 펼치는 난장판 퍼포먼스 〈난타〉는 사물놀이 가락을 등에 업고 세계 시장을 ‘난타’ 중입니다. 세대와 현실비판이 매력인 〈지하철 1호선〉은 번안의 뱀새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우리화’ 한 작품이죠.”

그와 뮤지컬의 인연은 1995년 런던에서 시작됐다. 출장길에 〈미스 사이공〉과 〈캣츠〉를 보고 뮤지컬의 매력에 빠져들었다는데, 2년 후에는 공연담당을 맡아 마음껏 공연장을 누빌 수 있는 행운도 따랐다. 가장 많이 본 작품은 〈명성황후〉. 벌써 스무번도 넘게 봤는데 볼 때마다 피날레 장면에선 감동이 북받친다. 개인적으로는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을 좋아한다. 그 가운데 〈레 미제라블〉은 “사람이 지닌 다양한 내면을 정확하게 짚어낸 작품. 뮤지컬 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 칭송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나 자신을 비평가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전문 영역을 쉽게 풀어 대중과 소통하도록 이끌어내는 것, 비평가와 대중을 연결시키는 매개자로 만족합니다. 이 책이 첫책이자 마지막 책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연 시작을 알리는 짧은 암전, 그 순간의 떨림을 기억하는 한 뮤지컬은 언제나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 박옥순기자